

제4회

평화  
특수  
영역  
학교

평화를 배우고 실천한다(빌 4:9)

2024. 6. 2. (주일) - 6. 23. (주일), 오후 2시  
6. 28.(금), 오후 8시



# 목차

## CONTENTS



- 01 초청의 글
- 02 평화통일학교일정
- 03 1강  
성찬예배 :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성찬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 바라보기 - 김유연 박사
- 23 2강  
어둠 속에서 손 내밀어 주신 구원의 빛 - 이경 자매
- 27 3강  
위대한 감리교회가 복음 통일을 준비하자! - 강철호 목사
- 35 4강  
시대의 격변기를 준비하라! - 하광민 교수
- 59 5강  
금요기도회 설교 및 특강 : 북녘과 감리교회 - 유관지 목사
- 71 메모



## “제4회 평화통일학교를 열면서”

---

평화통일은, 세상의 틀로 본다면 공산주의로는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의는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건강한 생각이라고 하지만, 성숙하지 않으면, 싸움과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인권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귀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자유라는 아름다움이 잘못 적용되면, 동성애도, 마약도 자유가 됩니다.

한마디로 자유라는 말이 방종이나 타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더 건강한 이념이긴 하지만,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꽃을 핀 복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복음 안에서 평화통일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어느 남한 목사님께서 탈북한 분의 간을 이식 받았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는데, 그 때 깨달아진 것이 있었답니다.

이것이 통일이구나.

남북이 서로 하나 되는 과정은 대 수술이 필요하고, 아픔과 고통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섭다고 하지 않으면 죽을 뿐입니다.

복음은 찢어지는 아픔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만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평화통일학교의 이유입니다.

평화통일학교를 통해 배운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들려주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로부터 흘러갈 때, 십자가에서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북분단을 하나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평화통일학교의 배움을 통해, 복음평화통일을 이루실 때까지 이 귀한 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안성제일감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빌립보서 4:9)

2024. 6월 제4회 평화통일학교를 열면서 **담임목사 이선진**

제4회  
평화통일학교  
일정

1강

2024.6.2(주일) 오후 2시

성찬예배 :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 바라보기  
설교 : 김유연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2강

2024.6.9(주일) 오후 2시

어둠 속에서 손 내밀어 주신 구원의 빛  
이경 자매(서울신학대학교 재학 중)

3강

2024.6.16(주일) 오후 2시

위대한 감리교회가 복음 통일을 준비하자!  
강철호 목사(새터교회 담임목사)

4강

2024.6.23(주일) 오후 2시

시대의 격변기를 준비하라!  
하광민 교수(충신대 교수)

5강

2024.6.28(금) 오후 8시

금요기도회 : 북녘과 감리교회  
유관지 목사(북녘교회연구원(NCRC) 원장)

#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성찬(24. 6. 2. 주일. 오후2시)

성찬으로 나아감 - 시 67:1-2 - 다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 다같이

공동기도 -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평화의 하나님! 이 땅 분단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분단의 상처를 모른 채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소서.

분단으로 갈라져 반목하고, 대립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분단을 깨뜨리는 도구 되게 하시어, 칼을 쳐서 낫과 호미를 만드시는 새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이끄시는 하나님, 평화통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반도가 하나 되어, 온 세상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평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경 봉독 - 집례자

에스겔 37:15-17 /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5:21 /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 말씀에 대한 응답 -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 되게 하실 그 날까지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 평화의인사

(집례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중)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변 분들을 찾아가 손을 뻗어 인사하겠습니다.)

(회중)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 평화의 찬송 - 412장 (후렴만 2번)

성찬제정사

(집례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임재의기원

(집례자) 이제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 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시어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성찬 분급 - 주님을 따라 평화의 도구가 됩시다.

성찬후감사기도

(집례자) 이제 다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다함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결단 찬송 - 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 다같이

※ 축도 : 집례자

# 1강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성찬**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 바라보기**  
설교 : 김유연 박사



<b>강의</b>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
<b>강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교육개발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연구원</li><li>-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원</li><li>-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li><li>-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석사</li></ul>



#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 바라보기

안성제일  
감리교회

김유연  
한국교육개발원

소통하는 통일교육  
남북한과 통일 이야기

**북한?            통일?**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3



4



[https://www.youtube.com/watch?v=KFBd\\_SUYw\\_A](https://www.youtube.com/watch?v=KFBd_SUYw_A)

02:33 – 05:15

5



6

# 통일 비전

## 통일은 왜 필요한가?



## DMZ 지뢰폭발사건



2015년 8월 4일  
육군 하사 두 명 다리 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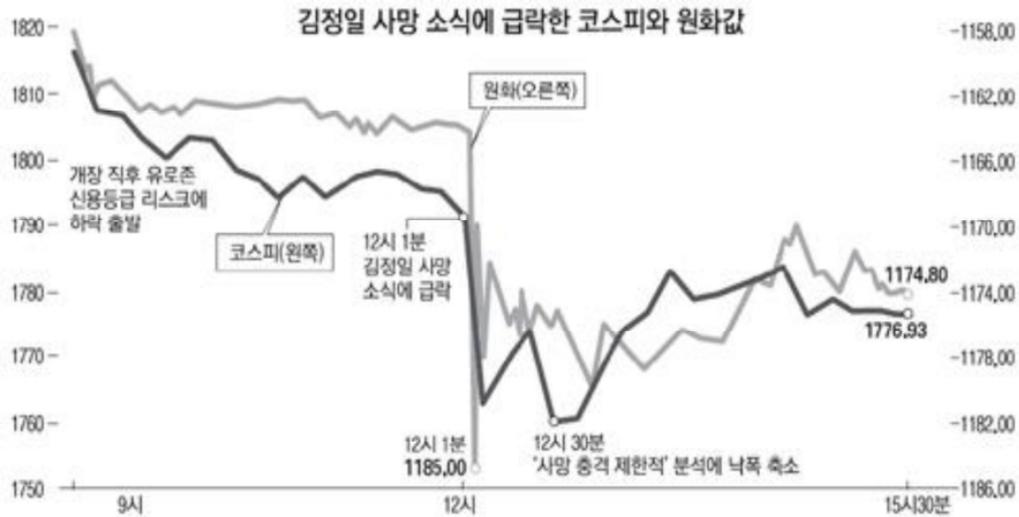
9

## 청년들의 군 입대



10

## 코리아 디스카운트



11

## 이산가족의 恨

- 이산가족 수 : **133,993명**(2024.3)
- 매년 고령사망자수 : **3,000명** 안팎
- 북한이탈주민 : **34,121명**(2024.3)
- 월남 실향민 : **350만 명** 추정



12



**통일비용은 한시적, 편익총합은 무한대  
독일은 통일 30년 후 주가 10배 뛰어**

윤덕룡 KDI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특강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2030 청년대토론회 "아, 진짜 통일이 미래나?"

바로가기 >





## -국내총생산(GDP) 세계 4위 (2023년 기준)

15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

16



17



<https://www.youtube.com/watch?v=R47XJDifN-Q>

00:20 – 02:13

18



1903년 원산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신사참배를 결의한 조선예수교장로회 대표들이  
1938년 9월 10일 평양신사를 찾아가 참배하는 모습

출처 : 기독교신문(<http://www.kido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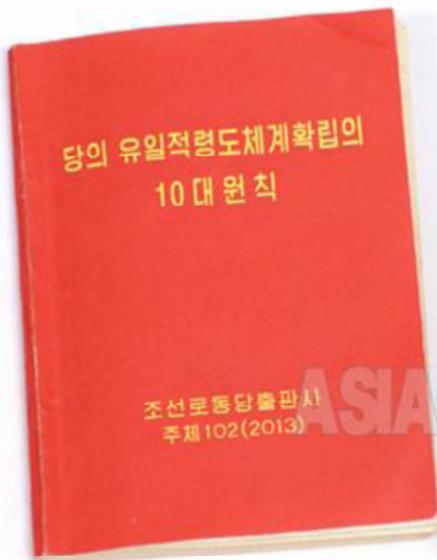
강돈욱



강반석



강양욱





봉수교회



칠골교회

##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 북한에 대해 알아보기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기



## 남남갈등 극복하기

### 북한 인식유형 척도 테스트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체크												
	↓	↓	↓	↓	↓	↓	↓	↓	↓	↓	↓	↓
반전												
합산												

+ People  
- 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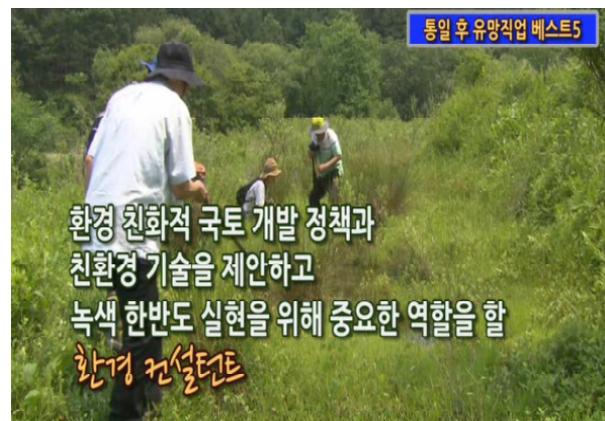
+ Unity  
- Separate

+ Internal  
- External

+ Feeling  
- Thinking

27

## 통일을 상상하며 미래 준비하기



28

감사합니다!



# 2강

## 어둠 속에서 손 내밀어 주신 구원의 빛 이경 자매



강의	저의 어두운 인생에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멀고 험난한 여정을 동행하시며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서울신학대학교 재학 중</li><li>- 국립통일교육원 위원</li><li>- 국방부 안보 강사</li><li>- 경기도 교육청 강사</li><li>- (사) 유니시드 이사</li></ul>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탈북민 이경입니다.

어둠속에 방황하며 보이지 않았던 작은 존재에 불과한 저를 하나님은 구원의 빛으로 손 잡아주셨고 1만2천여키로를 돌고돌아 제3국을 거쳐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검으나 아름답다" 라는 찬양입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으나 아름답다

제가 어느곳에서 태어났든지, 제가 아무리 초라하고 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외모나 스펙의 잣대로 저의 존재를 기준하는 세상의 눈으로 아닌,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광야와도 같았던 탈북여정의 어려움속에서도 매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저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복음 통일이 되는 날 북한 주민들에게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찬양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 3강



## 위대한 감리교회가 복음 통일을 준비하자! 강철호 목사

<p><b>강의</b></p>	<p>한반도의 통일은 오직 복음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위대한 감리교회가 탈북민 선교와 복음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p>
<p><b>강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고등학교 졸업</li> <li>- 중국 심양시 서탑교회 부설 동북신학원 졸업</li> <li>-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해양전문대학 해운학교졸업</li> <li>- 감리교 신학대학원 졸업</li> <li>- 미국 어메리칸 인터네셔널 유니버시티대학 명예박사</li> <li>- 현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자문위원</li> <li>- 현 (사)북한기독교총연합회 이사장</li> <li>- 현 (사)그날까지 선교회 이사</li> <li>- 현 (사)탈북민자립지원센터 센터장</li> <li>- 현 기독교대한감리회 새터교회 담임목사</li> </ul>



## 위대한 감리교회가 복음통일을 준비하자!

발제: 새터교회 강철호목사

### 서론

2024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한반도에 반드시 평화의 새봄이 올 것 이라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엔 평화가 아닌 사상투쟁의 냉혹 속에서 북한동포들이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노래하며 정치적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한반도는 정치적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이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함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다.

현 시대적 상황에서 감리교회가 이제는 북녘에 갇힌 저 동포들을 위해 선지자들이 통곡하며 외쳤던 그 외침으로 복음통일을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정권은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사상교육과 당 간부들의 충성심 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입국 3만4명의 탈북민들과 북한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북한사회에 한류 문화가 형성되고 기독교 신앙이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김정은 체제는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북한은 기독교를 통한 김일성 주체사상의 허구가 밝혀질까 두려움을 안고 있고 이에 반한 기독교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선교적 현실앞에 이제 우리 감리교회도 북한선교의 전략과 대안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70년의 분단속에서 늘 우리는 애국심을 강조하여 왔다. 진정한 애국심은 신앙에서 나옴을 기억하자. 이제 감리교회는 복음통일을 위해 북한에 갇힌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외쳐야한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어야 하며 복음적인 통일이 우리에게 삶의 질과 정신적 질도 함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시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통일 비용’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 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을 바로알고 북한동포를 위한 바른 선교적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통일의 우선이라고 말하고 싶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어떻게 복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독일통일에서 서독교회를 통해 감리교회는 무엇을 배우고 3만4천명의 탈북민들을 어떻게 통일사역의 일꾼으로 준비시킬 것인가? 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1. 독일통일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독일통일의 비밀을 통해 본 분단 70년의 극복 방향 (평화연구원 제116호 현안진단자료) 프라이카우프(freikauf)의 비공개 추진이 통일을 촉진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를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2015년 2월 취임 직후 남북자문제 해결을 묻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가 말한 답변이다.

프라이카우프와 관련된 한국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하겠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다. 2009년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 중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해결에 관한 당시 통일부 장관의 답변도 마찬가지다. 프라이카우프는 동서독 분단체제에서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던 사업을 말하며,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1989년까지 지속되었다. 사업이 지속된 26년간 3만 3,755명의 동독 정치범이 서독으로 넘어왔으며, 이에 대해 34억 6,400만 마르크(약 15억 달러) 규모의 생필품이 대가로 동독에 지급되었다. 동독 반체제 인사 1인당 약 10만마르크를 지불한 셈이며, 이는 당시 서독 1인당 국민소득의 5배를 상회하는 큰 금액이었다.

사업은 서독 정부의 지원 하에 <서독 교회>와 동독 비밀경찰을 창구로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당시 서독의 유력 언론이었던 슈피겔지가 프라이카우프 관련 내용을 보도했을 때 서독 정부는 사업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으며, 나중에는 언론사 편집인들에게 국익차원에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론사들은 숙고 끝에 정부의 방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업은 단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비밀유지는 “우리에게 정치범은 없다”고 주장했던 동독 정권의 협력을 유도했고, 서독사회내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프라이카우프가 독일 통일을 앞당겼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독일통일은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고도 장기적인 준비의 산물이었다. 통일은 요란한 구호로 오지 않으며, 실천의지를 담은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도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북한주민의 신뢰 없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오지 않는다. 분단 70년을 다시 공허한 담론과 말의 성찬으로 보낼 수는 없다. 독일통일의 평범한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깊이 반추할 때이다.

필자는 1997년에 대한민국에 자유를 찾아왔고 감리교단에서 목사가 되어 북한선교와 탈북민 목회를 하는 탈북민이다. 사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본 감리교회는 한국교회안에서 제일 먼저 탈북민선교를 시작했고 (97년 서부연회 은회곤 총무 대북선교와 탈북민선교를 지혜롭게 진행, 당시 감리교회가 최초로 탈북민과 감리교회1:1 자매결연 맺기 행사 진행) 탈북대안학교도 타 교단에 앞서 최초로 시작한 전례가 있다.(하늘꿈학교)

또한 10년전엔 북한선교에 뜻을 둔 감리교회가 연합하여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을 세워 지금까지 양천구 새터교회 매입봉헌, 중국내탈북자 24명 (1인150만원 경비소요)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이들에게 자유를 찾아주었다. 더 중요하게는 정기적으로 월1회 탈북민들과 북한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감리교회의 북한선교? 이제는 연합이다.

우리 감리교회는 특별히 서부연회가 있다. 서부연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동포와 탈북민선교 또한 우리에게서 우선적 사명이 아닌지 생각해보자. 하여 감리교단적 북한선교에는 앞문선교와 뒷문 선교가 필요한때임을 자각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연합된 힘으로 통일은 더 빨리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리교회가 통일에 기여하려면 간단하다. 정치를 흉내 내지 말고 교회답게 강도만난 북한동포들의 이웃이 되면 된다. 북한엔 강도와 강도 만난자가 분명하다. 독일통일이 우리통일의 모델이라면 그렇다면 서독교회를 배우자. 서독교회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며 동독의 정치범들과 기독교인을 서독으로 데려오는 사역을 통일전까지 꾸준히 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자.

평화? 북한선교? 절대로 그냥 오지 않는다. 평화엔 희생이 따르고 북한선교엔 순교가 요

구된다. 세계정보의 메카역할을 하는 미CIA 국장이 조만간 북한 사회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 발언했다.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 아닐까? 지금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가 통일사명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2. 탈북민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자

탈북민 !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수령절대주의에 물젖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인간 기계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여 수령이라는 우상에 자신의 목숨을 내맡기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수령은 우리의 부모형제를 굶겨죽이고 우리의 삶의 몸부림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이런 아픈 상처를 안고 우리는 <자유>라는 꿈을 안고 두만강을 건너 사람들이다. 우리가 바라는 자유는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다는 것을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걸쳐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알게 되었다. 오늘도 이 땅으로 찾아온 수많은 탈북민들이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며 내일을 준비해 가는 모습에서 통일의 희망을 본다.

한국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탈북자 한사람이 철저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면 북한 땅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과 같은 힘을 발휘한다” 라고....

그러나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맨 처음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남남갈등이다. 한국사회는 물론 교회마저 보수와 진보라는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갈등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은 남북통일을 무색하게 할 만큼 탈북민들에게 걱정거리로 남게 된다.

더욱 탈북민들을 실망케 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인정하고 함께 통일 논하자는 사상이 없는 행동이다. 교회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기독교 펍박에 당당히 외쳐야 한다. 북한동포를 외면하고 우리만의 평화?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대한민국 안에선 격렬히 갈등을 조장하면서 북한과는 평화?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때이다.

어떤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받은 질문이다. 북한을 좀 안다고 하신 한 목사님이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방법 아닌가? 십자가를 들고 성경이 금지된 북한에 성경을 보내고 그들을 자극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십자가 전쟁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 견해를 물었다. 개개인의 생각과 마음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선과 악의 관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세는 자기민족을 노예에서 해방 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때가 아닌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다.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박해 받는 북한의 인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한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 감리교회는 통일을 위해 탈북민을 준비시켜야 한다.

북한을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의 수가 3만4천명이 되었다. 탈북민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명을 가진 탈북민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통일을 대비해 곳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56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 졌고 탈북민선교를 시작한 교회 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겪는 고민 또한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새터교회는 물론이요, 현재 여

러 곳에 세워진 탈북민교회의 말 못하는 고민이 물질에 현혹된 탈북민들의 빼뺏어진 마음 때문에 전도에서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도현장에서 탈북민들을 만나 전도하면 이들은 ○○교회에서는 월 얼마씩 주는데 그 교회는 얼마를 주겠느냐? 하는 황당한 질문이다. 많은 교회들이 탈북민들의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금전을 이들은 몸값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사회의 조직구성과 생활이 기독교와 흡사하다는 사실에서 탈북민 선교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이는 오히려 이들을 반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한국사회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성향을 살펴본다면 90년 말까지는 정치적 현황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이었다면 90년말부터 2007년까지는 북한의 식량위기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 탈북한 탈북자들이 대다수였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는 브로커를 통한 가족계획 탈북이 늘면서 한국에 먼저 온 연고자가 있는 탈북민들이 대다수이다. 이런 현황으로 부작용 또한 교회의 탈북민선교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탈북민선교는 구제를 통한 지원선교였다. 지금도 대형교회들은 구제우선 탈북민선교이다. 실례로 모 대형교회는 월 금전적 지원조건으로 탈북민들을 교회 성도로 불러들인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탈북민들을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성상 구제를 통해 교회로 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은 1-2년의 지원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주는 교회를 찾아 떠난다. 결국 여기에 익숙한 탈북자들이 교회를 구제의 곳으로 오해하게 되고 자신은 가난하기에 응당히 받아야 하고 교회는 주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된다.

일부는 이런 교회를 이용하여 가족이 탈북하여 오게 되면 돌아 다녔던 교회를 답습시킨다. 이런 빼뺏어진 마음을 가진 탈북자들을 돌려세우기란 너무 힘이 든다. 일부 탈북민 목회자들은 오죽하면 차라리 한국교회가 탈북민선교에서 손을 떼고 이런 습관을 주입시키지 않는다면 탈북민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탈북민들에게 교회는 생명살리는 곳이지만 믿음으로 헌신하고 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구원 받고 기도해야 할 곳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동시에 신학공부를 하고 있는 탈북민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하나의 본으로 세워 자각과 자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탈북민들이 주변에서 신학공부하거나 목회하는 동기생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선교의 일꾼양성에 희망을 보게 된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 왔다. 대북지원의 현장에는 늘 한국교회가 앞장서 왔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기에 통일 후 이들에게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빼고 신앙을 심어주면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앞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

현재 탈북민 선교를 하면서 이들에게서 듣는 얘기는 북한에서 살아있는 김정일을 믿었지만 그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런데 또 남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니 선택이 서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도 지켜주지 못한 우리 인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겠는가 이것이 많은 탈북민들의 대답이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잘 알지 못하기에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통일 후 북한동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우리는 먼저 이들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수준 있는 일꾼을 준비시켜야 한다. 현재 남남갈등이 사회통합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 후의 남북갈등 또한 우리가 우려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한

국사회에 와서 이들은 남한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의 존경과 가난의 외면과 무관하지 않다. 남한사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유럽 같은 부자나라에는 아주 우호적이고 존경의 대상이지만 동남아등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온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향에서 탈북민들 또한 탈북민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사람들과 멀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터교회의 한 성도가 한 고백이다. 탈북민으로 한국 사회에 들어와 어느 분의 소개로 한국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예배 후 목사님이 강단 앞으로 불러 성도님들에게 탈북민이기에 기억하고 잘 도와주라고 성도들에게 강조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을 앞에 세워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 교회에서 마음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주일 예배 후 식사시간에 그 교회 장로님이 자신을 불러 장로님 옆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이다. 식탁에는 고기반찬 같은 맛있는 반찬들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에게 북한에서 고기반찬 마음대로 먹을 수 없지 않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신경쓰느라 고기반찬은 잘 먹지 않는다. 북한에서 배굶으며 살았는데 많이 먹으라고 식탁의 고기반찬을 자신에게 몰아주시더라는 것이다. 그 친구는 당시 자신이 거지취급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사랑은 전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자칫 서로의 감정 대립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 친구는 그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보면 통일 후 남한사람과 북한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남한에 내려온 탈북민들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둘째는 남북갈등을 해소하는데 탈북민이라는 이들이 중재자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결론

한국은 반드시 통일 될 것이다. 통일 후 한국은 세계 경제 7대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길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모로 한반도의 통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변화의 흐름은 한반도 통일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통일 후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역할은 더욱 커지고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정치적 상황은 지도부의 위상이 전보다 약화 되었다는 것, 김정은 체제가 순조롭게 이양된 것 같이 보이지만 불안하다. 나이 어린 사람을 세워 김일성을 흉내 내는 것은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은 이상결집을 위한 것이다. 공산주의 붕괴가 보여준 것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등장시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스스로 강한 것처럼 여러가지 정치행사를 크게 치르는 것은 약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함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 내용이다.

감리교회가 통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한동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신앙의 근본을 북한 당국자들에게도 알게 하는 것이다. 현재 통일에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바로 교회안에서의 정치적 이념 갈등이다.

북한도 이런 한국교회의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한 대남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정은은 한로동당 간부회의에서 <조선로동당에 두려운 존재는 60만의 한국군대가 아닌 남한으로 간 탈북자들과 한국교회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다.

왜? 교회가 두려운가? 소위 김일성주체사상이 참된 그리스도 사상 앞에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는 표현이다. 지금 우리는 통일을 위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올해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평화통일이라는 우리의 소원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이 그 시기와 방법을 알고 계신다. 건축가가 집을 짓기에 앞서 공을 들여 세밀하게 설계도면을 만들게 된다. 철저한 구상으로 만든 도면은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지만 부실한 도면은 그 건축된 집 또한 흉물로 만들기 일쑤다. 감리교회가 소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희망하는 한반도의 통일을 철저한 준비 속에서만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감리교회와 성도들은 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향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확신한다.

서울남연회 양천지방 새터교회 강철호 목사

010-7202-8243

# 4강

## 시대의 격변기를 준비하라!

하광민 교수



<b>강의</b>	1945년 분단 이후 두 번의 역사적 격변기를 통한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고 이 시대에 다가오는 3번째 전환기를 준비하는 시간
<b>강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총신대 통일개발대학원 주임교수</li><li>- 총신 평화통일연구소장</li><li>- 통일부 서울지역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li><li>-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회장</li><li>- 남과 북이 함께 하는)생명나래교회 개척</li><li>- 전)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초대 사무총장</li><li>- 전)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초대회장</li></ul>





## 시대의 격변기를 준비하라

하광민 교수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 강사소개

---

총신대 통일개발대학원 주임교수

---

총신 평화통일연구소장

---

통일부 서울지역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회장

---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생명나래교회 개척

---

전)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초대 사무총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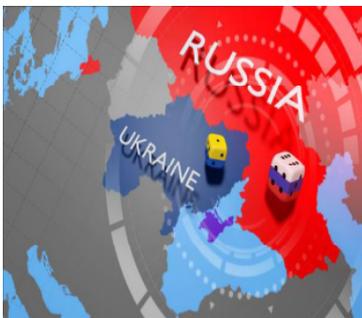
전)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초대회장

## 사무엘상 3:1-4

-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 혼돈의 시대, 격변의 세계

전쟁의 시대



2020년 2월



2023년 10월



2024년 4월

#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신 냉전의 시대 : 한미일 안보협력 Vs. 북중러 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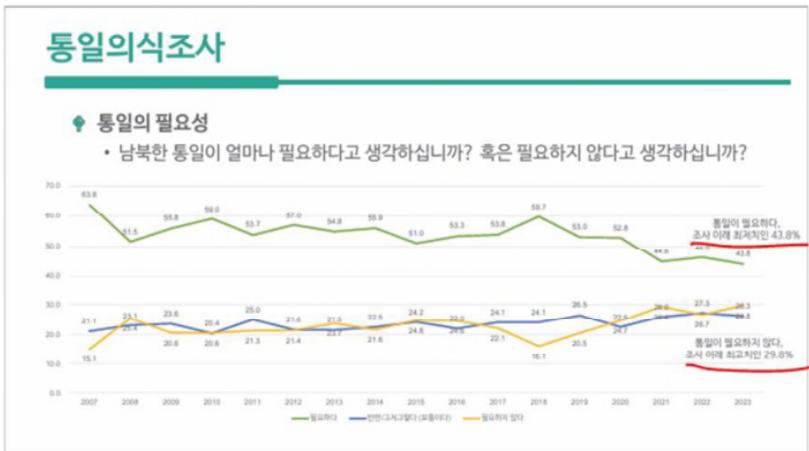


미중 갈등 : 대만 전쟁 가능성



# 통일이 과연 필요한가?

- 서울대 2023년 통일의식 조사



# 청년층의 통일의식 점차 감소

• 서울대 2023년 조사

## 통일의식조사

### ◆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의 필요성 세대별 응답 비율 (19~29세: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1.2%로 역대 2위)

연령대	세부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게 그렇다 (모름/아름)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9-29세	13.3	14.4	7.6	5.0	6.1	7.3	40.8	26.7	27.7	22.8	21.7	20.9	28.3	33.7	29.5	29.2	32.5	30.6	14.0	17.6	28.6	36.1	29.0	32.5	3.6	7.7	6.7	6.8	10.6	8.7
30대	17.3	11.7	14.8	9.6	7.3	8.5	31.0	28.5	26.2	31.3	26.7	25.5	27.4	36.9	26.2	24.5	33.8	31.0	17.5	21.5	23.8	28.8	24.2	28.0	2.3	3.4	7.0	5.8	8.1	7.0
40대	23.2	21.7	23.0	16.5	13.8	9.2	35.4	32.3	35.9	30.0	36.9	33.1	26.4	27.0	21.8	29.6	24.3	25.9	13.8	14.4	16.5	20.2	26.6	25.5	1.1	4.6	2.8	3.7	4.9	6.3
50대	27.2	25.9	28.0	15.1	18.6	17.7	42.2	36.1	34.9	31.8	31.8	34.2	16.0	21.0	18.4	26.4	30.3	22.7	13.3	14.6	13.0	22.5	16.3	20.8	1.2	2.5	5.8	4.3	3.0	4.4
60대 이상	24.6	25.1	28.9	20.6	23.8	28.1	37.5	41.7	33.0	36.4	37.4	27.5	23.4	15.6	18.2	21.0	18.4	23.7	9.3	11.4	18.6	18.0	16.5	17.6	5.2	6.2	2.8	4.0	3.9	5.1

# 통일은 필요가 아니라 필연으로 온다

한반도의 결정적 두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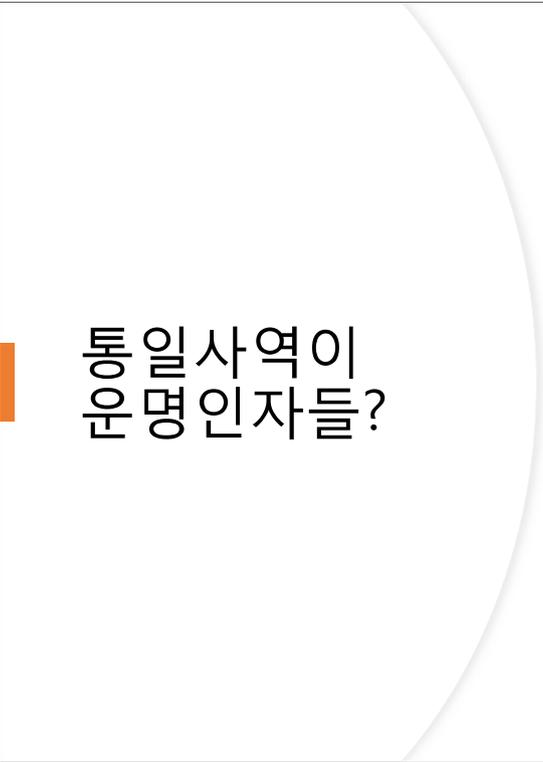
- 1) 일제로부터 해방 - 1945년 8월 15일
- 2) 베를린장벽 붕괴, 독일 통일 - 1989-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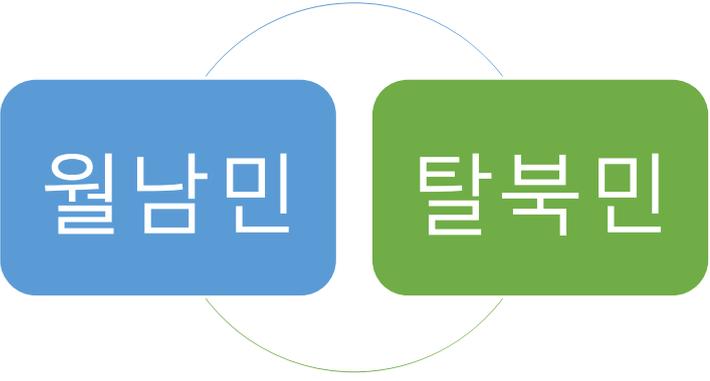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 1)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 일반 선교사명
- 2)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 특별 선교사명
- 3) 북한에서 내려온 자 - 운명



통일사역이  
운명인자들?



월남민

탈북민

# 제 1 전환기(1945년~1953년)-월남민



## 제 1전환기- 월남민, 그들은 누구인가?

- 1945년-1953년까지 월남자 수  
– 100만~200만명, 북한 인구의 10~15%정도
- 월남민 그리스도인 비율 – 북한 성도 20 여만 명 중 7-8만 명 정도 월남
- 월남 시기와 동기의 계층별 차이

계층	주된 월남 시기	주된 월남 동기
상층, 중간층	해방 이전 해방 후 전쟁 이전	정치, 사상적 이유 농지 개혁등 재산몰수
하층	해방 이전 전쟁 도중	구직 국군의 피난 권유

## 월남자들의 지역 분포 (1960년 기준)

황해도 - 210,000명(31.6%)

평안북도 - 117,000명(17.6%)

평안남도 - 148,000명(22.3%)

함경북도 - 35,000명(5.3%)

함경남도 - 154,000명(23.2%)



## 월남자들 사회 경제적 구조 (1960년대)

- 20대 남성이 주를 이룸
- 대도시 거주(서울과 부산에 90% 거주)

	전체	비농업부문	농업부문
상층	25.4%	상류계층 0.6%	지주농 24.8%
중층	47.6%	신중간계층 8.6% 구중간계층 19.0%	중농 20%
하층	15.6%	근로, 하류계층 1.2%	영세 농업노동 14.4%
무응답	11.4%		
계	100%	29.4%	59.2%

## 월남인의 사회 신분 이동

	월남 직후	1983년
상, 중상 계층	51명 (16.2%)	34명 (10.8%)
신중간 계층	65(20.6%)	42(13.4%)
구중간 계층	67(21.3%)	157(49.8)
근로 계층	36(11.4%)	8(2.5%)
하류 계층	93(29.5%)	66(21%)
미상	3(1%)	8(2.5%)
합계	315명(100%)	315명(100%)

## 월남기독교인들의 정착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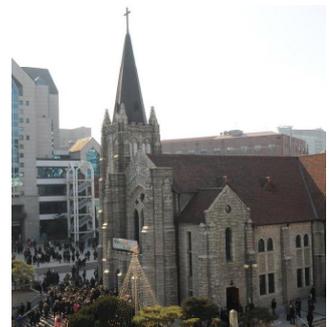
- 1946년 3월 24일 정동교회, 월남기독교인들 "기독교수난보고신도대회" 개최 및 결의문
  1. 구속된 교직자와 신도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2. 강제 점령한 예배당을 회부할 것
  3. 압수한 교회기구들을 되돌려 줄 것
  4. 파괴된 교회당의 수리와 소실된 비품을 상환할 것
  5. 예배와 신앙, 성전의 존엄을 엄중보호할 것
  6. 이상 범행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
  7. 전 조선의 각교회의 일주일간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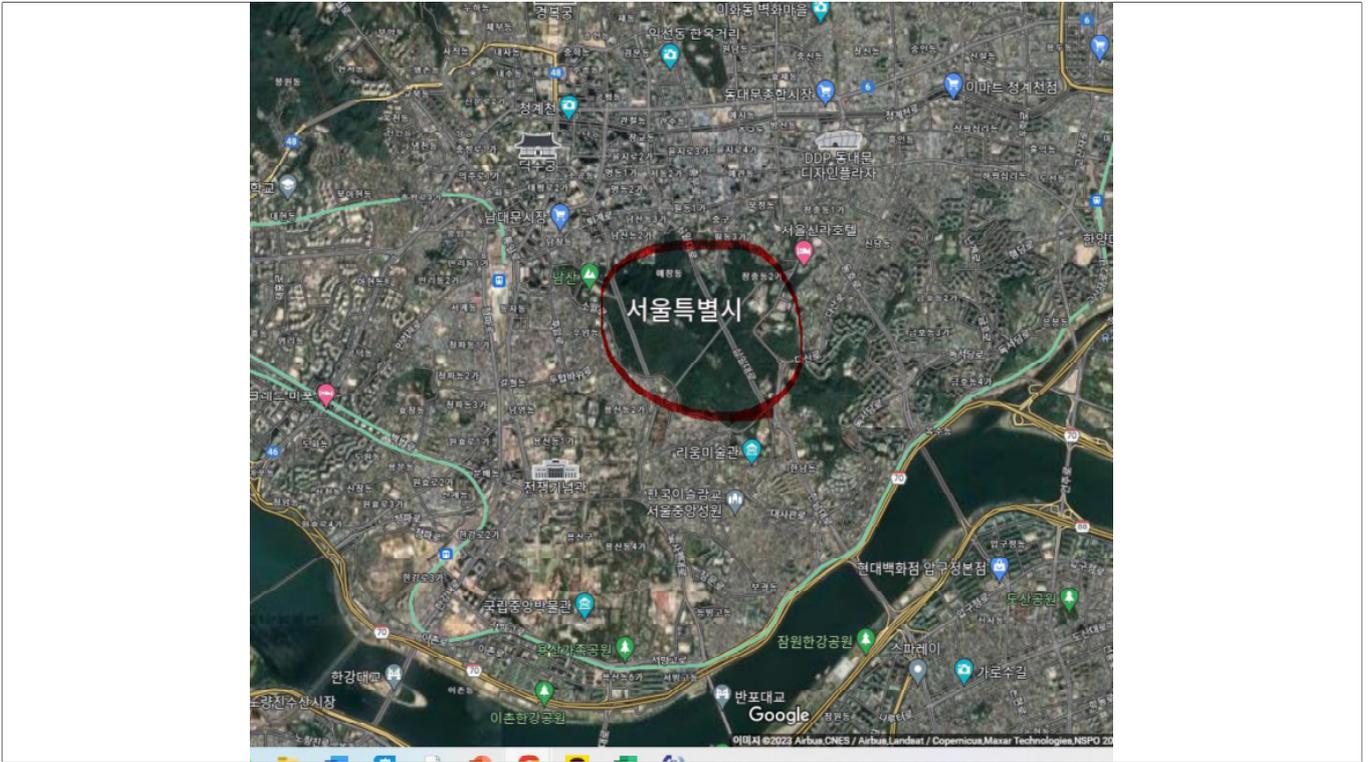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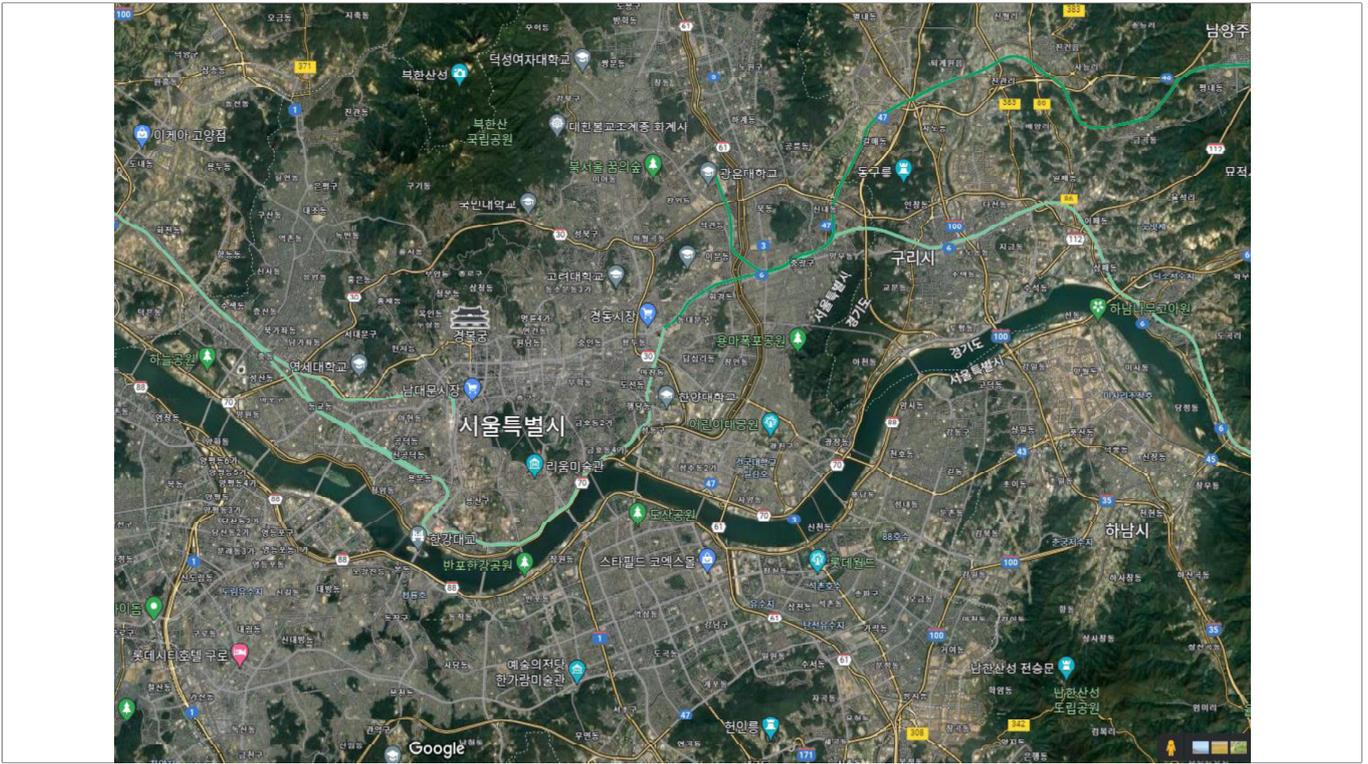
# 이북신도대표회 조직

- 월남민들은 북한기독교의 참상을 남한사회와 세계에 전달 성공
  - 그러나 그들의 정착 문제가 더 큰 문제에 봉착,
  - 1947년 8월 15일 "이북신도회" 조직, 회장 한경직목사, 서기 김성준목사
1. 월남한 교우를 위하여 월남목사들은 교회를 신설토록 할 것
  2. 월남한 교우들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중등교육 교육기관을 설립토록 할 것

# 월남민 교회들

- 이북신도회 소속의 교회들 속속 개척
- 1948년 9월 25개교회로 증가
- 영락교회, 성도교회, 미암교회, 서대문교회, 금호교회, 청암교회, 동광교회, 답십리교회, 창신교회, 신당중앙교회, 충무교회, 장충교회, 동성교회, 후암교회, 용산중앙교회, 해방교회, 옥인교회, 성동제일교회, 홍제중앙교회
- 1958년 8월까지 서울에 300여개, 부산 대구 각각 100여개
- 전국적으로 장로교 약 1,200여개, 감리교 약 500개소, 성결교 250개, 기타 교파 약 100여개 소 등 2,000개의 교회 중 90%는 월남민의 교회





## 월남민이 세운 각 교파의 대표적 교회들

장로교 합동	장로교 통합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충현교회 (김창인, 평북)	영락교회 (한경직, 평북)	금란교회 (김홍도, 평북)	신촌교회 (정진경, 평남)	벧엘교회 (박덕중, 함남)	한기춘목사 (서울 침례 교회, 대전침신) 1946/09/25 안대벽, 이순 도 부부가 원산에서 월남. 중구 필동 2가 101-1번지 에서 필동교회의 첫 예배 를 드림(8명)
성도교회 (황은근, 평남)	노랑진교회 (림인식, 중국 봉천)	인천송의교회 (이성해, 강원 김화)	신길교회 (이낙현, 평북)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최자실, 황 해)	이종덕 2대감목 - 원산에서 펜 워 에게 사사
대 구 서 문 교 회 (이성현, 북한)	소 망 교 회 (곽선희, 황해)	부천제일교회 (최기석, 황해)	장총단교회 (함경도 성도들 유입)		
강남교회 (김재술, 함흥)	송학대교회 (방관덕, 평북)	남산감리교회 (변홍규, 평양)	충무교회 (박명원, 함흥)		
평안교회 (김윤찬, 평양)	구파발교회 (임종헌, 평남)	일신교회 (조경우, 개성)	종로교회 (현 삼성제일교회) (김중환, 함흥)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



## 북한선교 차량전도

- 1981년 4월 6-11일(충남, 경기지방)과 4월 20-25일(충남북, 경기지방)에서 차량 이용 전도
- 집회 참석 연인원이 3,750명에 달함, 277명 회원을 모집



## 북한선교사 훈련 및 양성

- 1979년 7월 16일~21일까지 1차 북한선교특공대훈련을 강원도 정선에서 실시



## 북한선교회의 변천

- 1984년 문공부 사단법인 <북한선교원>
- 1987년 국토통일원 사단법인 <북한선교통일훈련원>으로 개칭



## 월남인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성과

- 교회 개척 - 1950년대의 90% 교회 개척이 월남인에 의한 개척
- 이북노회 신설
- 산업 일으킴
- 교육재건 - 대광학교(1947년) 개교, 재학생 대부분 평안도, 황해도 출신의 장로교도
- 안보 - 반공의식
- 북한선교에 대한 자세
  - 1) 가장 적극적
  - 2) 동시에 가장 반대

## 80년대 북한선교 구호

- “북녘 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들고 가리라”
- “무너진 성전 수축하자”
- “잃어버린 성도, 우리가 찾고 전도하자”

## 창세기 50: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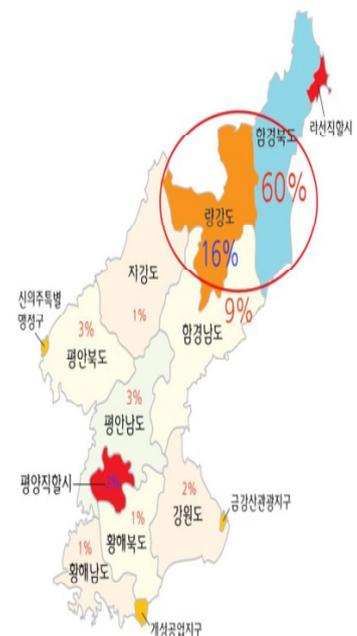
-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 월남민의 노령화 및 월남민 교회의 정체성 혼돈

- 실향민 1세대 사라지고 있음
- 2세대 역시 고령화
- 3세대 - 부정체성
  
- 북한 고향과의 소통 끊김

## 제2전환기 - 1990년대 북한이탈주민 등장

-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 출현
- 현재 34,000여명 국내 입국
- 젊은 여성 - 70%
- 함경도 - 70%
- 기독교 비율 - 30%



## 탈북민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

매우 만족	22.2%
대체로 만족	41.5%
보통	32.8%
다소 불만	2.8%
매우 불만	0.6%

• 남한생활 만족도  
 만족 → 63.7%

- 불만족의 이유
  - 1) 경제적 어려움 - 61.1%
  - 2) 차별과 편견 - 30.9%

## 탈북민의 사회경제적 상황(2016년)

	북한에서	남한에서
상층 상	1.9%	0.4%
상층 하	2.6%	0.6%
중간층 상	26.7%	10.6%
중간층 하	24.9%	25.6%
하층 상	16.7%	34.7%
하층 하	26.9%	27.4%

- 월남한 주민들보다 하층민들이 더 많은 현실



#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북한통일선교사역

1. 한국 교회 내 탈북민 부서, 탈북민교회, 남북통합목회 공동체 설립
2. 탈북민 취창업
3. 탈북민 대안학교
4. 탈북민구출양육사역
5. 북한통일선교교육
6. 기도사역

## 제 3의 전환기 도래 - 코로나 이후(2020년)

### 탈북민의 급감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3 (감정)	합계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2	9,477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9	24,339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11	33,826
67.0%	69.4%	74.6%	77.6%	78.3%	77.3%	75.4%	70.6%	73.1%	75.6%	78.2%	80.3%	78.7%	83.3%	85.2%	80.7%	68.6%	36.5%	81.8%	72.0%



# 미국의 고립주의 - 흔들리는 세계 질서

우크라이전에 질렸나... 美 국민 50%만 “北 남침 시 韓 방어해 야”

기사입력 2023-10-05 18:10:00  
기사수정 2023-10-05 20:57:22

가

2021년 63% 찬성서 글감  
주한미군 주둔 72%→64% ↓  
우크라이전 장기화 여파 분석



서울신문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스포츠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5~10년 내 3차 세계대전 터진다" 99세 원로의 핏빛 경고

1

2023-05-18

"미중, 대만 입장 유지하면서도 실무 관계 신뢰 쌓아야"  
"AI로 적국 100% 파괴 가능한 시대...시 군축 대화 시작해야"



가

1

148

2

3

4

5

# 북한 내 시민사회 형성



1. 북한 MZ세대(장마당세대)의 등장
2. 북한 당국의 대응
  - 1)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 2)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 3) 평양문화보호법(2023년)
3. 흔들리는 북한 내부 사정



## 결론 - 제3의 전환기를 준비하라

-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함
  - 1) 해외 탈북민 매개 사역의 종료
  - 2) 신냉전 구도의 심화로 인한 동북아 긴장 고조
  - 3) 국제질서가 재편될 때 통일이 올 가능성
- 요셉의 지혜 필요 - 7년 흉년을 위한 창고를 준비할 때
- 교회는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구조와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
- 4) 할 수 있는 사역에 집중
  - 국내 탈북민 사역 및 교회 세우기
  -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국내, 국제적 대응
  - 전파 선교
  - 모일 때 마다 기도





# 5강



## 북녘과 감리교회 유관지 목사

<p><b>강의</b></p>	<p>북한 전 지역(1 직할시, 3특별시, 9도)을 소개하고 그 지역들과 감리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시간</p>
<p><b>강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대 신학과, 중앙대 대학원(국문학과)졸.</li> <li>- 호서대 대학원에서 북한교회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Ph. D. 학위를 받음.</li> <li>- 극동방송에서 북방선교 업무 담당.</li> <li>- 성세교회(마포지방), 목양교회(용인서지방) 담임목사.</li> <li>-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 호서대 겸임교수 역임.</li> <li>- 이화여대 다락방전도협회 부회장 겸 기독교문학연구원 원장 등 역임.</li> <li>- 현재 북녘교회연구원(NCRC) 원장,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자문위원, 「중국을 주께로」(웹진) 발행인 등.</li> <li>- 용산교회(중구용산지방 서울연회) 소속원로목사</li> <li>- 저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탈북민 대상 설교집), 「북중접경, 기도하며 걷다」 「북녘교회 이야기」(대한기독교서회 간)외 다수.</li> </ul>



## 북녘과 감리교회

### 유 관 지

통일선교와 관련해서 ‘안성’이라고 하면 하나원(정식 이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하나원은 국내에 살고 있는 3만4천 여 탈북민들에게는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잊을 수 없는 곳이 되어 있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탈북민의 주민등록번호가 하나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여 되었기 때문에 안성 주민들이 중국 비자를 발급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다. 그와 같은 안성에서 평화통일학교가 열리고 있는 것은 펍 의미 있는 일이다. 더구나 안성제일감리교회는 1950년에 설립된 교회이고, 오늘은 6·25 전쟁 당시 서울이 함락된 날이어서 더욱 그렇게 여겨진다. 북한에서는 6·25 전쟁(그들의 말로는 ‘조국해방전쟁’)은 남에서 일으켰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탈북민에게 “그때 사흘만에 서울을 뺏겼는데, 어느 바보가 사흘만에 서울을 뺏기려고 전쟁을 일으켜요?”하면 대부분 “아, 그렇네요”한다.

지금 통일선교 사역은 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남북교류 중단, 탈북민 격감 등 악재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 ‘통일은 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통일은 필요 없다’는 부정적 통일관이 확산되고 있음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출발점이며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통일선교에 더욱 힘써야 한다.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초월적 방법으로 통일을 주실 것이라는 ‘초월적 통일관’을 새롭게 해야 한다.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모두 초월적 사건이며 30여 년의 독일통일도 그렇다.

‘통일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관심이 평양, 또는 잘 알려진 몇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본다., 그렇게 되면 지나친 경쟁과 지역간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녘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선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형편, 특성, 그리고 분단 이전 그 지역의 교회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강의는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녘에 도(道)가 몇 개 있습니까?”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하는데 이런 문제는 속히 극복 되어야 한다.

북녘은 1952년에 ‘군면리 대폐합’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 대개편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크게 바뀐 행정구역이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생활 전반의 기본틀로 자리를 잡았다. 북녘

은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개편을 종종 하고 있는데 통일선교 계획은 당연히 이렇게 바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옛 지도를 가지고 어디를 찾으려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감리교회의 서부연회는 이 점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22개 지방을 조직했다.(지방 이름은 말미에 있음) 그것을 보면서 ‘과연 감리교회답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각 지방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알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는 모습을 대하게 된다. 포장은 번듯하나 내용물은 빈약하거나 없는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강의가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통일선교에 더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 A.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일

### 1. 북한의 현행 행정구역

1직할시(평양), 3특별시(남포·라선·개성), 9도, 24시, 144군, 37구역(남한의 ‘구’), 2구, 3지구 145읍(군의 중심지), 3,230리, 1,135동, 267로동자구(노동자 밀집 거주지역)

### 2.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

- 북한은 1946년 9월에 평양을 특별시로 승격하고 강원도를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을 계속해서 실시해오고 있다.

- 1952년 12월(6.25 전쟁 중)에 대규모의 행정구역 개편 실시(군면리 대폐합)

- 면 폐지(3단계 행정체계)

- 군을 증설(98개에서 168개로)

- 리를 병합 개편(1만120개에서 3,658개로)

- ‘로동자구’ 설치

- 북한 행정구역 이름(지명)의 특징

- 여진말 지명, 일본식 지명, 봉건통치, 종교미신 지명 청산( 1960년대 중후반에 ‘고장 이름 조사 사업’ 실시)

- 김일성 가계의 이름을 딴 지명(김형직군, 김정숙군, 김형권군 등)이나, 김일성과 가까웠던 인물들의 이름(김책시 등),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지명들(선봉군, 김제원리 등)이 많다.

- 한글 지명들(과일군, 솔밭리, 네길동, 새마을리)이 많다.

- 우리에게 익숙한 예전 행정구역이나 지명으로도 기본적인 파악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행정구역과 지명을 알고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된다.

(남한 주민은 현행 행정구역을 잘 모르고, 현재의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은 예전 행정구역을 잘 몰라 혼선이 빚어지는 일들이 없지 않다.)

북한은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을 때 이를 공표하지 않는 일이 많다. 따라서 북한의 매체에 새로운 지명이 등장하면 역추적해서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예전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의 주소를 현행 행정구역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 인구에 따른 북한의 도시 순위(구글 자료, 2014년)

순위	도시 이름(도)	인구	순위	도시 이름(도)	인구
1	평양직할시	2,514,692	15	안주(평남)	240,117
2	함흥(함남)	768,551	16	덕천(평남)	237,133
3	청진(함북)	667,929	17	김책(함북)	207,299
4	남포특별시	366,815	18	라선특별시	196,954
5	원산(강원)	363,127	19	구성(평북)	196,515
6	신의주(평북)	359,341	20	혜산(량강도)	192,680
7	단천(함남)	345,875	21	정주(평북)	189,742
8	개천(평남)	319,554	22	희천(자강도)	168,180
9	개성(황북)	308,440	23	회령(함북)	153,532
10	사리원(황북)	307,764	24	신포(함남)	152,759
11	순천(평남)	297,317	25	송림(황북)	128,831
12	평성(평남)	284,386	26	문천(강원)	122,934
13	해주(황남)	273,300	27	만포(자강도)	116,760
14	강계(자강도)	251,971	북한총인구(유엔발표)		2,520만(2015)

비고 북한은 2008년 인구일제조사에서는 평양의 인구가 325만5천여 명이었으나, 2010년에 승호구역과 중화군, 상원군이 황해북도 이관되어(강남군도 함께 이관되었다가 2011년에 복귀되었음) 평양의 면적과 인구가 줄어들었음.

### 3. 선교지역 분할 [敎界禮讓]

• 한국에 온 장로교(북장로회·남장로회·오스트레일리아장로회·캐나다장로회)와 감리교(미감리회·남감리회)의 선교회들은 “중첩을 피하고 돈과 시간과 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1892년부터 선교지역 분할을 추진하여 1909년에 확정하였다.

• 북한지역에서 감리교의 선교지역은 다음과 같다.

#### 미감리회

**황해** 옹진·강령·해주·연안·배천·평산·신계·봉산 일부·수안 일부·서흥 일부  
**평남** 평양·양덕·함흥·삼화·맹산 일부·성천 일부·개천 일부·은산 일부·순천 일부·강서 일부·증산 일부·용강 일부  
**평북** 태천·운산·희천·영변

#### 남감리회

**경기** 송도(개성)  
**강원** 춘천·철원·양구·이천(伊川)·지경대  
**함남** 원산·회양·안변·용동

평안도와 황해도는 앞의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이 북장로회의, 함경도는 원산과 그 주변

을 제외한 전 지역이 캐나다장로회의 선교지역이 되었다.

• 이 선교지역 분할은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선교회의 성격에 따라 그 지역 교회의 특성이 형성되는 현상을 빚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장로회의 선교를 받은 함경도 지방의 교회들은 진보적이 되었다.

선교지역 분할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감리교회가 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선교지역 분할은 1930년대 말에 폐지되었다. 1939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제7회 동부·중부·서부 합동연회의 전도위원 보고에는 “二. 금번 연회에서 좌기사항을 긴급히 결의하여 연회 즉후로 실행하기를 요망함. 1. 기위 장감구역이 철폐된 이상 중요 지역에 감리교회를 확장할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과 같이 감리교는 장로교 선교지역에 진출하고(예: 청진 일원에 감리교회 설립) 장로교는 감리교 선교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느라고 힘쓴 일도 있다(예: 황동노회의 춘천 선교),

## B. 각 지역의 시와 군들, 그리고 교회의 역사

\*행정구역 순서는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한국평화문제연구소가 공동편찬한 「조선헌토대백과」를 따랐음(북한에는 행정구역일람 류의 자료가 없음.). 도 안의 시·군은 가나다 순을 따름.

\*북한에는 ‘도청소재지’를 도소재지’라고 함.

### 1. 평양직할시

• 분단전에는 95.2km<sup>2</sup>, 인구 30여 만, 현재는 1,260km<sup>2</sup>(2010년에 외곽지역을 분리하기 전에는 2,629m<sup>2</sup> 이었음), 인구 250만 명. 18구역 2군.

- ‘조선의 예루살렘’(「동아일보」 1934년 9월 5일 2면 톱기사 제목)
- 장로교의 중심도시: 신학교를 평양에 두었음.
- 1907년 대부흥을 비롯하여 각종 주요사건들이 평양에서 일어났음.
- 감리교와 평양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음.

감리교가 평양의 초기 선교를 개척했고(홍 선교사와 김창식 등), 활기찬 선교활동을 지속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들이 좋은 참고가 된다.

① 남산교회·성화교회·시온교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평양지역 감리교 역사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학술 심포지엄(2014. 11. 8.)의 자료집. 다음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기조강연 “평양지역 감리교 역사와 한국교회”(유관지 목사)

제1발표 “평양 남산현교회의 역사”(이덕주 교수)

제2발표 “성화신학교의 역사와 성화과의 활동”(고성은 목사)

제3발표 “해방후 평양 감리교인의 월남과 교회재건”(조이제 목사)

②이덕주. 「남산재 사람들」. 서울: 그물, 2015.

감리교회는 북한지역에서는 약했다'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 평양에 있었던 감리교회들(1941년 제8회 연회록 기준, 괄호안은 당시 '공식적인' 담임자. 이하 같음)

남산현(김창준) 중앙(황치현) 박구리(이피득) 신양리(박동선) 유정(최창신)  
 채관리(김창립) 선교리(박종현) 창광산(주기원) 신리(김임길) 서평양(이관운)

## 2. 남포특별시(옛 진남포)

- 북한 제1의 무역항(서해갑문이 있음)
- 2010년 특급사에서 특별시로 승격됨
- 룡강군·온천군·강서구역·대안(大安)구역·천리마구역·와우도구역·항구구역, 2개군 5개 구역이 있음.
- 일부는 감리교 선교지역이었음.
- 남포특별시에 있었던 감리교회들(소재지와 담임자 순)  
 신흥리(진남포, 李鎬斌: 평안서교구장), 역양기(진남포, 김영순), 중앙(옛 이름 비석리, 진남포, 안석준·이창주) 신유리(용강, 신석구), 강서(강서, 송정근) 등 21교회

## 3. 라선특별시(북중접경지역, 두만강 유역, 항구도시)

- 라진(일본에 의해 개발된 도시)과 선봉(옛 옹기)이 합해 라진선봉시('자유경제무역지대')가 되었다가, 라선직할시-라선특급시(함북)를 거쳐 2010년 라선특별시로 승격됨.
- 감리교회는 없었고, 침례교회(동아기독교)가 여럿 있었음.
- NGO들의 대북지원 활동이 활발함.

## 4. 개성특별시

- 2019년 특별시로 승격, 개풍구역, 판문구역이 편입되고 최근에 장풍군도 편입됨
- 남감리회의 중점 선교지역으로 남감리회의 개성 선교부는 서울 선교부보다 규모가 컸으며, 북부(김중필)·동문내(신흥철)·중앙(유백희)·남부(김원규)·한천동(이운용)교회와, 남성병원(현재 개성아동병원으로 사용), 송도고보·호수돈여고보·미리흙여학교, 고려여자관·중앙회관 등이 있었다. '감리교 도시'라고 할 만하다.

## 5. 평안남도

- 평성시(도소재지)·개천시·덕천시·순천시·안주시  
 녕원군·대동군·대흥군·맹산군·문덕군·북창군·성천군·숙천군·신양군·양덕군·운곡

지구·은산군·증산군·평원군·회창군·청남구(5개 시, 14개 군, 1개 구, 1개 지구)  
 ● 개천 일부·순천 일부·맹산 일부·성천 일부·양덕·은산 일부는 감리교 선교지역  
 ● 평안남도에 있었던 감리교회들  
 북원(개천군, 김석원) 순천(권영상), Y波교회(성천군, 이관선) 등 8교회

## 6. 평안북도

- 의주는 한국기독교의 ‘발원지’, 선천은 ‘기독교 왕국’이라는 말을 듣던 곳임.
- 신의주시(도소재지)·구성시·정주시

곽산군·구장군·녕변군·대관군·동림군·동창군·룡천군·박천군·벽동군·삭주군·선천군·신도군·염주군·운산군·운전군·의주군·창성군·천마군·철산군·태천군·피현군·향산군(3개 시, 22개 군)

- 평안도 지역에서는 장로교가 대단히 왕성하여 1940년 당시 국내 24교회 중, 평양노회·평서노회·안주노회·평북노회·용천노회(1군 1노회)·의산노회·삼산노회·산서노회, 8개 노회가 평안도 지역에 있었다.
- 영변·운산·태천은 감리교 선교구역
- 평안북도에 있었던 감리교회들

영변서(이경로), 영변동(유종학), 묘향산(조운여) 등 9교회  
 신의주(홍현설:1937. 7. 4. 설립, 국경회관에 있다가 미륵동 188번지로 이전)

- 영변(핵기지)이 감리교 도시였었다!

1905년 모리스(C. D. Morris) 선교사가 선교 시작, 미감리회 선교부 설치, 서부연회 영변지방이 조직됨. 승덕중학교, 제중원 등이 있었음.

## 7. 자강도

- 1949년 평안북도의 동북지역과 함경남도 장진군 일부를 합하여 신설
- 강계시(도소재지), 만포시, 희천시

고풍군, 동신군, 랑림군, 룡림군, 성간군, 송원군, 시중군, 우시군, 위원군, 자성군, 장강군, 전천군, 중강군, 초산군, 화평군(3개 시, 15개 군)

- 산과 강들이 많음. 임업이 발달. 발전기지, 군수공업 발달
- 희천(공업도시, 희천공작기계공장은 ‘북한 기계공업의 어머니 공장’임)은 감리교 선교지역
- 자강도에 있었던 감리교회

희천(최일영) 1개

## 8. 황해남도

- 1954년에 황해도를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분리(지리적으로는 황해도의 서부지역임).
- 해주시(도소재지)

강령군·과일군(송화군의 서북지역을 분리하여 신설)·룡연군·배천군 [白川郡]·벽성군·봉천군·삼천군·송화군·신원군·신천군·안악군·연안군·용진군·은률군·은천군·장연군·재령군·청단군·태탄군(1개 시, 19개 군)

● 황해남도 서해안은 구출라프 선교사와 토마스 선교사가 거쳐간 곳(올해는 토마스 목사 순교 150주년), 룡연군(과거 장연군의 일부)는 한국 최초의 교회(미조직)인 소래교회가 세워진 곳.

● 해주 · 강령 · 배천 · 연안은 감리교 선교지역

● 황해남도에 있었던 감리교회들

남본정(해주, 전희철 · 마경일), 해주항(송정률), 웅진읍(이호운), 연안(정봉익) 등 14교회

## 9. 황해북도

● 사리원시(도소재지) · 송림시

개풍군 · 곡산군 · 금천군 · 름산군 · 봉산군 · 상원군 · 서흥군 · 수안군 · 승호군 · 신계군 · 신평군 · 연산군 · 연탄군 · 은파군 · 장풍군 · 중화군 · 토산군 · 평산군 · 황주군 · 관문지구(3개 시, 19개 군, 1지구)

● 봉산 일부 · 서흥 일부 · 수안 일부 · 신계 · 평산은 감리교 선교 지역

● 황해북도에 있었던 감리교회들

배천(한태유), 금천(이인구), 이천(伊川, 윤태현), 등 20교회(개성 포함)

## 10. 강원도

● 1946년 9월 신설

● 원산시(도소재지) · 문천시

고산군 · 고성군 · 금강군 · 김화군 · 법동군 · 세포군 · 안변군 · 이천군 · 창도군 · 천내군 · 철원군 · 통천군 · 판교군 · 회양군(2개 시, 15개 군)

● 분단 이전의 강원도에는 1930년대 말까지 장로교회가 하나도 없었다(장로교는 도별로 노회가 1개 이상씩 있었으나 '강원노회'는 아예 없었다.)

● 원산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공동선교지역, 회양 · 안변 · 용동 · 철원 · 양구 · 伊川 · 지경대는 남감리회 선교지역

● 강원도에 있었던 감리교회들

원산중앙(전진구 · 박신오), 중청리(원산, 남천우), 흡곡(통천-이풍운 북한정권으로부터 훈장 받음), 정전(고성, 서기훈) 등 20개 내외

## 11. 함경남도

● 함흥시(도소재지), 단천시, 신포시, 흥남구

고원군 · 금야군 · 금호지구 · 덕성군 · 락원군 · 리원군 · 부전군 · 북청군 · 수동구 · 신흥군 · 영광군 · 요덕군 · 장진군 · 정평군 · 함주군 · 허천군 · 흥원군(4개 시, 15개 군, 1개 구, 1개 지구)

● 함경남도는 캐나다장로회의 선교지역이었음. 감리교회는 하나도 없었음.

## 12. 함경북도

● 청진시(도소재지) · 김책시(옛 성진시), 회령시

경성(鏡城)군·경원군(옛 새별군)·경흥군(옛 은덕군)·길주군·명간군·명천군·무산군·부령군·어랑군·연사군·온성군·화대군(3개 시, 12개 군)

- 감리교회가 하나도 없던 지역이었으나 캐나다장로회의 중심지역인 성진(城津: 현 김책)에 성진감리교회가 있었던 기록이 있음(1941년 연회록, 설립연도 미상, 이명제), 1940년에 총리원에서 김진호 목사를 파송하여 청진교회를 비롯하여 어항·경성·주을·생기령, 다섯 개의 교회를 설립했음.

서부연회(총무 김영민 목사)에서는 북에 있었던 감리교회의 재건을 담당하는 교회가 정해지면 현판식을 거행하는데 지난 4월 9일 제주반석교회(담임 문영걸 목사)가 생기령감리교회 재건을 담당하는 현판식을 가졌음.

### 13. 량강도

- 1954년에 함경북도의 서북부를 분리하여 신설했음. 백두산이 있고, 압록강·두만강 [兩江] 이 발원하는 곳.

- 혜산시(도소재지) 삼지연시(최근 집중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갑산군·김정숙군·김형권군·김형직군·대흥단군·백암군·보천군·삼수군·운흥군·풍서군(1개 시, 11개 군)

- 북한의 '혁명사적지'들이 많은 곳.
- 감리교회는 하나도 없었음.

### C. 참고

- 분단전 북한지역 감리교회 숫자(연회·지방별, 1938년 기준)

서부연회(191교회)		중부연회(95교회)		동부연회(82교회)		계(368교회)
영변지방	46교회	평천지방	52교회	원산지방	50교회	당시 전체 감리교회는 24지방 791교회였음(만주선교연회 2개 지방 16교회 포함). 그중 10개 지방 368교회가 북녘에 있었음.
평양지방	28교회	개성지방	43교회	철원지방	32교회	
강서지방	22교회			(철원지방 전체 52교회 중 20교회는 남한 지역에 있음)		
진남포지방	21교회					
사리원지방	26교회					
해주지방	48교회					

현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북한기독교역사사전」(편집위원장 이덕주 목사)을 편찬하고 있는데, 수록항목 작성 작업에서 북한지역에 있었던 감리교회가 497개로 조사되었음. 이는 이름이 한두 번 나오고 중간에서 사라진 교회들을 포함해서 분단 전 북녘에 있었던 모든 감리교회의 숫자임.

- 현재 서부연회에는 다음과 같이 22개 지방이 있는데, 지방별로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과거 교회의 역사를 파악하여 선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평양동 평남 평북서 동북선교 개성 개성남 함남 양강 남포 황남동 황남서  
황북동 황북서 평남북 강원남 강원북 평북동 자강 평양서 함남북 함북 함북남  
(「2023 교회주소록」에 따름)

**유관지** yookj44@hanmail.net

연세대 신학과, 중앙대 대학원(국문학과)졸. 호서대 대학원에서 북한교회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Ph. D. 학위를 받음.

극동방송에서 북방선교 업무 담당. 성세교회(마포지방), 목양교회(용인서지방) 담임목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 호서대 겸임교수 역임.

이화여대 다락방진도협회 부회장 겸 기독교문학연구원 원장 등 역임.

현재 북녘교회연구원(NCRC) 원장,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자문위원, 「중국을 주께로」(웹진) 발행인 등. 용산교회(분당) 소속원로목사

저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탈북민 대상 설교집), 「북중접경, 기도하며 걷다」 「북녘교회 이야기」(대한기독교서회 간)외 다수.



**MEMO**

**MEMO**

**MEMO**

# MEMO

**MEMO**

